

李대통령 “청문회 김민석 본인 해명 지켜봐야”

‘총리 후보자’ 관련野 문제 제기에 입장 밝혀
상임위원장 재배분엔 “여야간 협상할 문제”
정무수석 “격의없는 대화…만남 자주 갖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정무수석은 설명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등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에 경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참석 결과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끽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G7이 관심을 가진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 관련해서는 잘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최근뿐 아니라 괜찮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접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에) 흔쾌히 함께 해 줘 감사드린다.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하시면 저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우정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이는 국회에서 여야간 잘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 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지도부를 향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가능하면 (여야 지도부를) 많이, 빨리 뵙자는 입장이어서 한번 뵙자고 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 “성과 라면 그렇지만 이번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집권여당 민주당 대표 경선…‘호남 표심’ 향배 주목

‘같은 듯 다른’ 정청래·박찬대 대결 예고
충남·4선·운동권 鄭…인천·3선·회계사 朴
李대통령 ‘엄정 중립’…격려 만찬도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2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체 권리당원의 30%가 몰려있는 호남권의 표심이 경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올랐다.

2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을)과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지도부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끈 대표적 친朋(친이재명)계 인사로 통한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당 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그동안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박찬대 의원은 23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955년생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똑같이 ‘친명’ 인사란 점에서 ‘같은 듯 다른 삶’을

살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 출신의 정 의원은 건국대를 졸업했다. 전대협 출신인 그는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 저거거는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역도 수형으로 면제받았다.

인천 출신의 박 의원은 인하대를 졸업했다.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 20년 가까이 회계 관련 업무를 범인에서 근무했다. 병역은 병장 만기 전역이다.

정 의원은 ‘투사형’ 정치인이라면, 박 의원은 ‘엘리트형’ 정치인이라느낌이 강하다.

두 의원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의 지지세를 나눠볼 때 전남은 정 의원이, 광주는 박 의원의 앞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골목골목선대위’ 호남본부장을 맡아 일찌감치 호남을 누볐다. 그의

부인이 강진 출신이란 점, 그의 부인이 똑같이 10남매 중 막내로 당원들 사이에서 화제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대선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당 대표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미 원내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우 의원(광주 동남갑)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선거와 관련, ‘엄정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박 의원을 포함한 직전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격려 만찬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자칫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평소 선명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앞장섰고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 단장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사퇴한 후에는 직무대행을 겸임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반인 만큼 정청래·박찬대 중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가’ 또는 ‘누가 더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잘 방어해 줄 수 있는가’ 여부

에 따라 호남의 표심이 갈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진수기자

‘기후에너지부’ 최적지 전남 해상풍력 위상 재확인

지자체 최초 ‘해상풍력산업박람회’ 성료

전남도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통해 전남 동부권 13GW 해상 풍력 비전 선포와 에너지 기본소득·기자재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기자재 업체와 발전사 간 상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사) 전남풍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8개 시·군 단체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전남 해상풍력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탄대한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개최해 동부권 13GW 해

상풍력 비전을 선포했으며 연관 기업과의 협약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명운산업개발, 유탑건설, 케이윈드파워, 바다에너지, 퍼시피코, COP, 레노바, 한화오션 등 유수의 발전사와 지역 공급망 사가 8건의 MOU를 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았다. 총 150여건의 기자재업체-발전사 간 매칭 상담이 이뤄져 행사장 열기를 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막식에서 “전남도는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준비해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전남이 그 역할을 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 비공개 정책 토론회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 재표결을 앞두고 23일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연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3일부터 제33회 임시회를 열고 이번 회기 본회의(30일)에

서 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기준 4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변은진기자

◀ 광주매일신문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취 / 급 / 품 / 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키트리지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임대 • A/S
- 전신스모품 • 헤이저(토너/드럼)
- 각종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대명OA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 의료시설, 쇼핑센터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도로구역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광양시 중동 및 황금동 일원 ‘시도 광1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사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위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광양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시도 광1호선 도로개설공사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신설	시도	광1호선	시도 증동, 황금동	366,574 m ²	중동 (1213-5)	황금동 (3184-15)	성황동, 도이동, 황금동, 황금동	8.07 km

• 결정사유 : 도로확장을 통해 인접 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

•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간
[설시설계, 관계행정질서, 토지보상, 공사추진 등]

• 수용사용면적 : 총 175필지 A=35,585㎡ (원면적 A=35,585㎡)

2. 주민의견 청취사항
가. 열람기간 : 2025. 6. 23. ~ 2025. 7. 7.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광양시청 도로과
다. 의견제출 : 광양시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열람 기간 내 의견제출
(전화 : 061-797-2825, E-mail : nary0113@korea.kr)
라. 판도서 : 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